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늘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주최로 오늘부터 13일까지 2일간 전주시(그랜드 힐스톤 호텔)에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이하 '비전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이번 비전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및 전주시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비전회의는 작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학문 간의 벽을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공론의 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이번 비전회의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내용들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정신과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 균형발전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38개 학회가 참여했던 제주 비전회의에 비해 이번 국가비전회의 II에서는 52개 학회와 28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송재호 위원장의 회사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의 환영사, 윤호중 국회의원, 성경룡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 시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 개막세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직후에는 강연 주제에 대하여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박길성 한국사회학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해법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김진성 기자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 김창환 군산시 투자유치지원단장과 마이클 위릭 벤처메탈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 외투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아'

### 美 '벤처메탈즈' 군산에 투자

강소美 외투기업 벤처메탈즈가 전라북도 군산2국가산업단지(3300㎡)에 자리를 잡고 약 4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전북도는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 김창환 군산시 투자유치지원단장과 마이클 위릭 벤처메탈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벤처메탈즈 투자협약(MOU) 체결은 올해 들어 첫 외투기업이 도내에 투자한 것으로 외투기업의 전북투자 신

호탄을 알리는 것이다. 벤처메탈즈는 군산2국가산업단지(3300㎡)에 규모에 36억원 약 44명을 신규로 고용하여 동, 알루미늄 및 합금메탈 리사이클링을 생산할 예정이다.

벤처메탈즈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한국, 중국, 인도 등 12개국에 재생원료를 비철금속을 판매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달라스에 설립 후 세계적인 금속산업 기업과 제강기업들에게 재생상품을 판매 및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코스닥 등록업체인 풍산, 대창, 서원, 삼보 등 국내기업들에게도

재생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으며, 투자 원료 후 제품이 생산되면, 도내 기업에게도 판매할 예정이다.

세계 금속 리사이클링 산업은 연간 약 740조원(2017년 기준)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재생금속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미국, 유럽에 많은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벤처메탈즈 투자를 계기로 재생원료를 미국에서 들여와 재생상품을 만든 후 국내 내 판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할 예정으로 전라북도 무역수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 "남북관계 발전시킬 결정적 기회... 평화경제 함께 열어야"

### 文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며 향후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의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일들이 행운처럼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평화가 옳은 길이고, 우리의 의지가 그 길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남들이 꿈처럼 여겼던 구상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실현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두면서 한미 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

층 가까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차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큰 원칙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 전북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기회로!

### 한국지엠 1차 협력사 창원금속공업, 도 지원받아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성공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위기에 빠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지엠 1차 협력사였던, 창원금속공업(주)은 전라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국산자동차 대체부품(인중품) 개발을 성공하여 제품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국산차량의 좌우 핸더로 보합개발원에서 해당부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9가지 엄격한 시험을 거쳐 대체부품(부품인증)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산 인증품 1호 인증서 수여식(19.1.15.)'을 진행했다.

개발된 제품의 품질인증 시험결과 인장강도에서는 인증품(대체부품)이 약17%더 높게 측정, 프라이머 코팅두께 시험에서도 인증품(대체부품)이

4% 더 높게 측정됐다.

국내 제조업체가 제작한 첫 번째 국산차부품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 기술력이 입증 되었으며 품질 또한 OEM 부품과 비교했을 때 동등함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차차 보험수리 시 소비자가 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개발적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해 5월 폐쇄함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해왔다.

자동차부품 기업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제품 다각화 및 고객사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체부품(인중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이번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대체부품은 수입차종에 대하여 핸더, 범퍼, 본넷,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오일 필터, 엔진오일을 합쳐 총 797개의 부품이 출시, 국산자동차 1호 부품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국산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도 나혜수 주력산업과장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로 국산자동차 1호 대체부품 개발이 성공하게 되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우리 지역을 대체부품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